

이동식 정자의 설계 시공법 연구

이정환

제이제이 시스템개발 대표

A Study on Design and Construction Methods of Movable Pavilions

Lee, Jung-Han

Ceo, JJ System Development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sign and construction methods of movable Pavilions. Through the literature analysis, the setting up of the construction background, location and direction, size and composition,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vable pavilion is designed to enjoy a wide range of views. It was a creation that reflected the way in which the ideal life was pursued based on the experience of enjoying scenery rather than owning one's own house and running a pavilion.

Second, the formation of movable pavilion was intended to enjoy the scenery by season without restrictions on time and place. It can also relieve the hassle of having to move tools to enjoy the wind every time.

Third, the movable pavilion faces to a place with good scenery and determines its position and direction. Most of them were built on a small scale and divided the space for viewing the scenery, playing GO(Baduk), writing poems,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s. Also, wood was used mainly. To reduce the load, roofs and walls were constructed with light materials such as bamboo, straw, thick sheet of oil, and cotton cloth. The construction method was mainly used by the method of fastening for easy coupling and dismantling. When a building was constructed on the upper part of a ship or cart, the wooden structure of a regular pavilion was constructed.

Fourth, when comparing the design and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of ordinary pavilion and movable pavilion, the movable pavilion is easy to see for contrast purposes, so there is no limit to setting the location and direction. Instead, more stringent systems and techniques were called for, because as mobility forces should be considered, structurally measures to withstand loads, and they should satisfy their function and form as pavilion.

Key words: Chayeotaek Pavilion(此予宅), Garden Facilities, Gwanseolam Pavilion(觀雪庵), Saryunjeong Pavilion(四輪亭), Taekseungjeong Pavilion(擇勝亭)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동식 정자의 설계시공방법을 살펴보고자 문헌분석을 통해 조영 배경과 입지와 향의 설정, 규모와 구성, 재료, 시공방법 등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이동식 정자는 곳곳에 펼쳐진 경승을 두루 유람하기 위해 고안된 정자로 산수를 즐기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정자를 경영하는 것보다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 반영된 창작물이었다.

둘째, 이동식 정자의 조영은 계절별, 시기별 경관을 때와 장소의 제한 없이 감상하고자 하는 의도로 조성되었으며, 풍류를 즐기기 위한 도구를 매번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고안되었다.

셋째, 이동식 정자는 경관을 조망하기 용이한 곳을 향하여 입지와 향이 결정되며, 대부분 소규모로 구성되어 그 안에서 경관을

[†] **Corresponding Author** : Lee, Jung-Han, JJ System Development, Yeonseoro 530, Eunpyeong-gu, Seoul, South Korea, Tel.:+82-2-385-3832, E-mail: jhan4455@naver.com

감상하거나, 바둑, 작시, 탄금 등을 위한 공간을 구분하였다. 또한 목재를 주로 사용하고, 하중을 저감시키기 위해 대나무나 짚, 유둔, 면포 등 가벼운 소재로 지붕과 벽면을 구성하였다. 시공방식은 결합과 해체가 용이하도록 하는 결구기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선박이나 수레 상부에 정자를 조성할 경우에는 일반 정자의 목구조식 시공이 이루어졌다.

넷째, 일반 정자와 이동식 정자의 설계시공 특성을 비교해보면 이동식 정자는 조영목적상 경관의 관람이 용이하여 입지와 향의 설정에 제한이 없으나, 기동력을 고려하고, 구조적으로 하중을 견디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자로서의 기능과 형태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제도와 기법이 요구되었다.

주제어: 관설암(觀雪庵), 사륜정(四輪亭), 정원시설, 차여택(此予宅), 택승정(擇勝亭)

I. 서론

원을 구성하는 요소는 산(山), 수(水), 수(樹), 석(石), 옥(屋), 로(路)의 육법설(六法說)과 화목, 수천(水泉), 산석, 점철(點綴), 건축, 노경(路徑)으로 표현하기도 한다[1]. 이중 정자는 건축에 되는 요소이다. 원림설계의 구상과 주제는 유명한 산수와 명승을 모방하는 데[1] 정자는 원림설계의 구상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망처 역할을 하고 있다. 경치 좋은 곳에 입지하고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거처로서도 기능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선비들은 경관이 수려한 장소에 입지를 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절유택(四節遊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자를 사용해 자유분방하고 기발한 상상력을 옮겨 놓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이동식 정자이다.

중국에서 정자는 원림건축의 중요 요소로서 조망시점의 제공과 강화, 시 짓기, 악기연주 등 풍류를 즐기기 위한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정자는 일반 주택과는 달리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주거단위라기보다는 자연과 함께 벗어나면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건축물이라고 하겠다.

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시지각적 측면에서 분석과 배치, 평면형식, 유형분류를 통한 정량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문헌분석을 통해 누정 명칭의 어원과 유래, 배후사상, 주변환경 등을 분석하였다[2][3][4]. 정자를 시·서·화가 함축된 공간으로 보기도 했다[5][6][7].

유식공간(遊息)으로서 정자건축의 기능과 특성을 성리학적 사고와 이념이 담긴 공간으로 정리하였으며[8], 정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정원 공간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는 등 국한문학, 조경학, 역사학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한편, 국내에서 이동식 정자에 대한 연구는 사륜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유일하다. 이규보의 사륜정기 분석을 통해 사륜정의 조성 배경과 공간배치, 구조 등을 소개하는 수준의 연구[9][10] 이후 현재까지 이동식 정자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최근 조경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을 통해

본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경실무분야의 실체를 인식하게 되었고 전통조경 분야는 그동안 정원의 형태적 산물에만 집중할 뿐 과거 중요한 정원요소들의 설계나 시공분야에는 별 관심이 없어 고매한 문인들의 사상이나 공간구성에만 천착하여 실제 전통공간을 재현할 때 사용하는 대상들의 재료나 시공방법에 있어서는 건축이나 다른 분야 전문가에게 떠넘기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까운 예로 국가정원들에 사용된 전통조경의 실체는 현대적 트렌드에서 형태만 바꾼 것과 경제성에 입각한 대상물들 일색이다. 한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국가의 트렌드 중 하나로 내세우기에는 너무도 빈약한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전통정원 재료와 시공에 대한 학문 활동의 진작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전통재료와 시공에 대해 손에 잡힐만한 방법들을 탐구하고 특징들을 밝혀 과거 공간의 구체적 형태를 제공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동식 정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당시 이동식 정자를 조성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의도와 정자 조성을 위한 공간의 배치나 분할, 정자의 기동성 확보를 위한 방법, 조영기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동식 정자의 설계 시공기법 특성을 살펴봄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자 중 이동식 정자의 설계 시공방법 비교를 통해 이동식 정자의 조성과 공간분할을 통한 사용방식 등을 살펴 보았다. 이동식 정자에 대한 기록은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 『준생팔전(遵生八牋)』, 『사륜정기(四輪亭記)』 등의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관련 문헌에서 기록된 이동식 정자는 택승정, 관설암, 차여택, 사륜정이 확인되었다.

택승정(擇勝亭)은 북송대 문인 소식(蘇軾)이 여음현(汝陰縣)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만들었던 정자로 택승정명(擇勝亭銘)에 조영목적과 구성방식을 기록하였으며, 관설암(觀雪庵)은 준생팔전에 이동식 암자로서 소개되어 있다. 차여택(此予

宅)은 배를 활용한 이동식 정자로 중국 원림에서 나타나는 방(舫)의 형태를 따르되 이동성이 부가된 정자라 하겠다. 사륜정(四輪亭)은 고려시대 문신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설계한 이동식 정자로 사륜정기에 사륜정을 설계한 배경과 공간배치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이동식 정자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 입지선정과 향의 설정, 규모와 구성, 재료, 시공방법 등을 살펴보았으며, 4개의 이동식 정자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이동식 정자의 설계 시공특성을 도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이론적 고찰 : 이동식 정자의 형성 배경

정자는 자연과 합일하려는 성리학적 사고관과 이념들을 바탕으로 심신과 수양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천석과 풍광이 좋은 입지를 선정하여 은둔과 소요, 강학과 제의가 이루어졌으며,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서로 어우러져 차경과 유식으로써 사물을 관찰하고 사색하여 이치를 터득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8].

개체의 건축으로 말하자면 정자의 조성은 그것의 지위, 무게, 입체 및 평면조형, 실내외 공간의 관계, 심지어 내외 처마의 양식 등 온갖 요소는 모두 자체의 효능과 심미수요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기타 원림경관과의 평형조건 관계로 인해 결정되는 바가 더욱 많아[11], 건축의 각종 요소가 기타 경관과 서로 호응하여 어울리도록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는 사정(射亭), 망행정(望杏亭), 포정(圃亭), 계정(溪亭), 수사(水榭), 죽정(竹亭), 회백정(檜柏亭), 모정(茆亭) 등 다양한 종류의 정자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정자는 대부분 정자에서의 기능(활쓰기, 농사 독려 등)과 정자가 조성되는 장소(텃밭, 경작지, 시냇가, 강가, 저수지, 향나무 주변, 소나무 주변), 소재(대나무, 락 등)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게 된다[12].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교외 원림에 경치를 더해주는 개별 정자·누대 등은 사대부들의 교유 장소로서 활용되기도 했다. 산림에서의 교유는 도시 내 원림이나 조정에서의 교유와는 다른 것으로 보았으며, 옛 풍류를 쫓는 고아한 삶의 하나로 보았다[13]. 이에 기이한 산봉우리나 넓게 펼쳐진 강가에서 풍류를 즐기는 것을 청복(淸福)으로 꼽았으나, 그곳에서 경관을 감상하고 시를 짓고 술을 마시는 등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를 누릴 수 있는 일정한 터와 시설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사례로는 신라시대 사절유택(四節遊宅)을 들 수 있는데, 봄에는 동아택(東野宅), 여름에는 곡량택(谷良宅), 가을에는

구지택(仇知宅), 겨울에는 가이택(加伊宅)에서 지내며 철에 따라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장소에 터를 잡고 물가에 정자를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14]. 또한 변암 채제공의 부용재기에 “여러 유명한 노선생들은 거의 모두 몸소 좋은 경치 좋은 곳을 점령하여 살면서 글 읽고 학문하는 곳으로 삼고 사후에는 제사하는 곳이 된다. 그러한 땅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바둑을 벌여 놓은 것처럼 많다.” 라는 내용을 보더라도 신라시대부터 이어져왔던 당시 권세가들의 세태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왔음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그러나 경치가 빼어난 곳에 일일이 정자나 누대를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정자가 조성되었더라도 그곳이 본인이나 지인의 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이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은거를 결심하거나,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치 않아 집 없이 임원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자를 조성하고 그곳을 왕래하며 주변의 경관을 즐기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는 정자를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않거나, 혹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바탕으로 경치 곳곳의 경치를 즐기기 위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정자를 경영하는 것보다 더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동식 정자에 대한 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동식 정자는 기존 정자의 간소화, 경량화를 통해 조영목적인 경관감상의 기능을 충족하면서 곳곳에 펼쳐진 경치를 두루 유람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합된 것으로 그간의 산수를 즐기는 경험의 반영과 구상에서 나온 창작물이라 하겠다[1].

2. 이동식 정자의 조영목적

한정우기에는 정자를 세우는 데 오로지 이름난 정원에 조성된 정자를 그대로 모방하는 당시의 상황을 비판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기존 정자를 참고하여 새로운 형태를 이루어내는 조영기법을 기초로 하는 창의적 시공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제후와 황제의 친족이 수많은 자금을 들여 정원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먼저 훌륭한 장인에게 다음과 같이 분부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정자는 누구의 양식을 본받고, 조금도 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사건건 모두 유명한 정원을 모방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고 자부한다. 정자를 세우는 훌륭한 일에서 높은 수준에서는 침신한 것을 표방하고 기이한 것을 창조하는 문인처럼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서는 본래의 면목을 뒤바꾸어 진부한 내용을 익혀 새롭게 내놓은 용렬한 솜씨마저도 배우지 못했으면서 아직도 시끄럽게 떠들며 득이양양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루하다고 자처하는 것인가[15].

이러한 관점에서 이동식 정자는 한정우기에서 밝히는 정원 조성의 세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자유롭고 신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자리를 비우고 옮길 수 있는 자유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소식(蘇軾)의 택승정(擇勝亭)은 자유성이라는 특성이 강조된 이동식 정자로 정자의 명칭에서도 '경치를 가려 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택승정명(擇勝亭銘)에는 일반적으로 물가에 조성되어 이를 내려다보는 고정식 정자와 달리 봄날 아침 꽃이 핀 교외나 가을 저녁 달 밝은 마당 등 빼어난 경치가 곳곳에 펼쳐져 있어 하나의 정자를 조성하고 이를 이동시켜 곳곳의 경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16].

관설암(觀雪庵)은 의미 그대로 장소에 따라 옮겨 다니며 눈(雪)을 감상하기 위해 고안된 이동식 정자로 설경을 감상하는 것 외에도 택승정과 같이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여택(此予宅)은 초나라 신하인 공열휴가 겨울에는 강에서 자라를 잡고 여름에는 산기슭에 쉬면서 누가 물으면 '이곳이 내 집이오(此予宅地)'라고 하며 세속에 얽매이지 않은 은자의 모습을 따라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16]. 특히 겨울철 강가에 머무는 모습을 취하여 차여택은 배의 형태를 지닌 2개의 이동식 정자로 하나는 호수에 두고, 하나는 강가의 나루터에 두었으며 정박하여 정자로 이용하거나, 노를 저어 선유(船遊)할 수 있는 기능을 겸하도록 하였다.

사륜정은 앞서 경관 조망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이동식 정자와는 달리 내부에서의 향유 방식에 중점을 둔 조영목적의 정자이다. 이규모의 사륜정기에 의하면 사륜정은 사대부의 풍류를 즐기는 과정에서 빼어난 경치와 그늘을 찾아 필요한 도구들을 매번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이동 시 각종 집기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안된 정자임을 알 수 있다.

여름에 손님과 함께 동산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바둑도 두고, 거문고도 타면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한가한 자의 즐거움인데, 햇볕을 피하려 그늘로 자리를 옮길 때마다 거문고, 책, 베개, 대자리, 술병, 바둑판을 떨어뜨리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륜정을 계획하고자 한다[9].

3. 이동식 정자의 조영

1) 입지선정과 향의 설정

예부터 집은 남방을 향하는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했다. 그러나 반드시 남방을 향할 수가 없으면 북방을 향한 집은 후방을 비워 남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받아들여야 한다[15]. 또한 남향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향, 북향의 순으로 방향을 두었으나, 서향의 설정은 이롭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금기시

하였다[12].

이동식 정자에서는 방위에 따른 엄격한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방식을 지닌다. 정자가 놓이는 방향은 주로 주변의 경관을 조망하기 용이한 곳을 따랐으며, 조망대상과 마주하는 곳에 자리 잡았다.

관설암은 바람을 등진 채 이동식 정자를 펼쳐 겨울바람을 막고자 하였으며, 차여택은 강이나 호수, 나루터에 조성되는 이동식 정자로 『금화경독기』에 의하면 임의대로 지정(池亭)이나 수사(水榭)를 지을 때 언덕을 등지고 물가에 닿아 있는 곳을 택한다고 하였다[16]. 차여택은 선박에 조성된 정자로서 배를 정박하는 곳이 곧 정자가 위치한 장소가 되었다.

2) 규모와 구성

정자의 규모는 지붕이나 난간 등 구조에 따라 규모를 지니나 이동식 정자의 경우는 이동 시 하중이나 차륜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이동식에 걸맞게 설계되었다. 비나 바람을 피하기 위한 천장이나 처마의 길이도 균형감 있게 이동 시 안전하게 고안되었다.

택승정은 구체적인 규모가 언급되지 않으나 장정 1명이 운반할 수 있는 크기이며, 평상을 편다는 내용으로 볼 때 평상을 두를 수 있을만한 정도의 작은 규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설암은 길이 9척, 너비 8척, 높이 6척의 규모로 틀을 짜서 지붕면을 덮고 중간에는 작은 좌상(座牀) 4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되, 불 피우는 도구와 식기를 놓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차여택 중 호수에 조성되는 배는 2장 남짓의 길이에 뱃머리는 4척 너비의 규모를 지닌다. 이러한 규모는 손님과 주인 6명, 하인 4명, 총 10명이 탈 수 있는 규모로 두 개의 선창(船倉,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배 가운데 선창은 주인과 손님의 공간이며, 배의 뒤쪽 선창에는 하인들이 자리하는 곳이다. 나루터에 조성되는 배는 길이 6.2장, 너비 1.25장으로 조성하고 그 안에는 사방 1장 정도의 공간에 자리 2장, 즉 주인과 손님이 마주하는 공간을 두고 이외에는 100개의 병(壺)을 저장하는 공간, 회랑, 누워서 시를 읊는 아주 작은 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륜정은 가로세로 6척의 규모로 바둑판에서 기원한 정간 구성을 통해 각 칸마다 가로세로 2척을 모듈로 총 9칸의 공간 분할이 이루어졌다. 6척의 설정은 천지의 여섯 가지 기운인 음(陰), 양(陽), 풍(風), 우(雨), 회(晦), 명(明)을 상징화한 것이다[9]. 중앙에 바둑판을 두고 양쪽에 바둑을 둘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주인과 손님, 거문고를 연주하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의 자리를 마련하고 이외에 2칸에는 입구 1칸, 술과 소반 등의 집기를 두는 자리와 거문고를 두는 자리로 구성하였다(Figure 1).

2尺	2尺	2尺		
Singer	Poet /Guest	Geomungo Players	2尺	
"Go" Players	"Go" Board	"Go" Players	2尺	
Entrance	Host	Various Furniture	Geo-mungo	2尺

Figure 1. A Space Composition of Saryunjeong Pavilion[14]

3) 재료

정자의 재료는 대부분 목재로 사용하게 된다. 지붕 역시 가벼운 재료로 대체하게 된다. 택승정은 목재 기둥과 도리가 정자의 골격을 형성하고 천장과 벽면을 장막으로 조성하였다. 특히 천장면에는 붉은 유둔(油氈,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 기름 먹인 종이를 여러 겹 두껍게 붙인 종이)을 둘러 방수의 기능을 부가하였으며[16], 벽면에는 푸른 휘장을 둘러 천장면과의 대비를 고려하였다. 이는 소철(蘇轍, 1039-1112)이 소식의 글에 이어 지은 사언시(四言詩)에도 "바람이 불면 푸른 휘장을 치고, 비가 내리면 붉은 유둔을 치네"라고 하여 날씨에 따라 화창한 날에는 면포로 만든 휘장을 사용하고 비가 내리면 기름먹인 장막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관설암 또한 가벼운 나무로 틀을 짜고 3면에 종이를 붙여 벽면을 형성하였으며, 차여택은 정자의 기본 형태가 배의 모습을 따랐으므로 정자의 재료 또한 배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사륜정은 형태적으로 바퀴 달린 수레와 정자가 합쳐진 형상이다. 이에 따라 정자 하부의 바퀴가 달린 부분은 목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는 지붕에 대나무로 짠 서까래를 엮어 하중을 저감시켰다.

4) 설계 시공방법

택승정은 사방을 기둥과 도리로 둘러싸고 서로 흠을 파서 끼워 넣는 결구기법이 사용되었으며, 택승정명에는 택승정의 시공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Figure 2).

자리를 깔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운 뒤, 첩차와 들보에 장부와 장부 구멍을 뚫고 서로 맞물리게 하여 조립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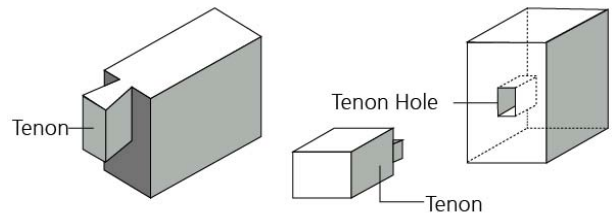


Figure 2. A Detail Drawing of Tenon(柄)[16]

있다[16].

이러한 시공방법은 오늘날의 텐트와 같은 구조인데 기둥이 목재주축의 재료를 삼은 것이 다르다. 이 정자의 전천후적 특성은 장막의 재료에 있다. 바람이 불면 면포로 만든 푸른 휘장을 치고 비가 내리면 붉은 기름을 먹여 방수가 되는 유둔을 친다고 했다.

관설암은 천장면에 틀을 짜서 지붕면을 덮고 앞쪽에는 겹으로 된 장막을 쳐서 정자를 구성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바람을 등지고 눈을 감상하는 공간을 제외한 삼면에 종이를 붙여 병풍과 같은 형태로 시공하였다. 이러한 시공방법은 모전(毛氈)으로 친 장막과 유사하나 보다 가벼우며, 앞쪽이 활짝 열려 있어 경치를 감상하는데 용이하다.

차여택 중 호수에 조성되는 선창은 4개의 기둥을 세우고 대·짚 등을 짜서 지붕을 만들고, 면포 장막으로 처마를 늘어뜨려 벽면을 형성하였다. 또한 양옆에 붉게 칠한 난간을 두르고 내부에 휘장을 조성하여 햇볕을 가리도록 하였다. 날이 흐릴 때에는 이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높게 말아 올려 채광을 확보하였다. 하인들이 자리하는 뒤쪽 선창은 남색 면포로 긴 장막을 만들고 선창의 기둥과 선미에 고리에 못을 박아두거나 묶어 바람과 햇볕이 들지 않도록 하였다.

나루터에 조성되는 정자에는 회랑을 따라 올라간 곳에 대(臺)를 조성하고 그 위에 장막을 펼쳐놓았으며, 바람이 세게 불 때에는 난간을 떼어나고 장막을 말아두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사륜정은 택승정이나 관설암과 같이 조립과 해체가 용이한 구조가 아닌 정자에 바퀴를 달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 정자로(Figure 3) 사륜정기에는 '바퀴를 넷으로 한 것은 사철을 뜻한 것이다'라고 하여 사계절에 대응한 바퀴의 수 적용이라 볼 수 있으나, 실제 시공이나 운용 측면에서도 두 개의 바퀴보다는 4개의 바퀴가 이동이 용이하며, 구조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4개의 바퀴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상부에는 일반 정자가 조성되는 이량사주(二梁四柱)의 제도를 따랐다. 또한 난간은 문헌상에 도입 사실만이 확인되나, 그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휴식이나 오락의 성격을 지닌

풍류공간이라는 점과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난간보다는 계자난간을 사방에 두른 것으로 판단된다[9].



Figure 3. An Estimation of Saryunjeong Pavilion[14]

4. 정자와 이동식 정자의 시공 특성 비교

이동식 정자의 조영과 시공방법 등을 살펴본 결과, 정원 내 건축적 요소로서 조성되는 일반 정자와는 달리 산수를 즐기고자 하는 경험의 축적을 바탕으로 초월적 삶을 희구하고자 했던 이들의 창작물이었다. 이에 따라 이동식 정자와 일반 정자의 시공 특성 또한 달리하게 된다. 이동식 정자들은 시공 특성에 따라 이동식 정자 시공과정 자체에 대한 가변적 형태와 정자의 형태를 조성하고 여기에 이동성을 부가한 형태로 구분된다. 전자는 택승정과 관설암에 해당하며, 후자의 경우 차여택과 사륜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정자의 시공과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Table 1).

1) 설계 시공목적

정원 내에 조성되는 일반 정자의 설계 시공목적은 1차적으로 경관감상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과의 동화, 은둔, 강학, 교류, 유식, 사색, 수신 등 고차원적인 풍류활동의 장소 마련에 있다.

이동식 정자 또한 경관감상을 조영목적으로 삼았으며, 이외에 이동성이 부가된 정자는 정자의 형태가 항시 구축되어 있어, 경관감상 외에도 시를 짓거나 바둑을 두고, 거문고를 타고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점에서 일반 정자의 행태와 유사하였으나 시공에서는 주인과 적은 수의 손님만을 위한 소박함이 돋보였다.

2) 입지와 향

일반 정자는 건축적 구성을 지니고 있어 입지와 향을 선정하기 위한 제도와 제반사항들이 요구된다. 정자의 앞뒤든 옆이던지 하나의 방향을 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치하게 되는 반대 방향은 그와 다른 특성이 법칙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동서남북에 대한 절대적 향이 중시되었다. 이는 시공 시에 이동식 정자가 바로 상황에 맞춰 실용적인 방향을 택할 수 있지만 하나의 방향이 결정된다면 나머지는 기본적인 상대적 방향의 원칙에는 맞아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반면, 이동식 정자의 입지와 향은 조망대상에 따라 그 입지와 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변적 형태를 지니는 이동식 정자들은 조망대상을 정자에 앉아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한 면을 개방하고 나머지 삼면을 면포로 두르기 때문에 조망대상과 마주하는 방향으로 정자의 입지와 향이 결정된다.

3) 규모와 구성

정자의 규모는 크기가 다양한데, 앞을 낮추고 뒤를 높이는 것을 원리로 하여 들판처럼 평평하게 배치하는 것을 피하고 높고 낮은 기세가 있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주변의 지세와 맞추어야 하는데 이동식 정자의 경우는 전체적인 사례에 걸맞도록 하였다. 이는 주인의 경관 취향과 형편에 알맞게 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설암의 경우 길이 9척, 너비 8척의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내부에 작은 좌상 4개와 불 피우는 곳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최대 4명이 수용가능한 규모로 판단된다. 이는 1명이 차지하는 공간이 가로세로 약 50cm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규모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택승정에 대입해볼 때 택승정은 평상을 둘 정도의 규모로 2명 정도가 최대 수용인원일 것으로 보이며, 규모는 약 2척-4척 정도로 추측된다. 이는 내부 구성이 치밀하게 짜여진 사륜정에서도 1명의 활동반경이 2척×2척인 점과 동일한 결과이다.

공간구성 측면에서 일반 정자는 목재 간의 조합 방법이 자유롭기 때문에 효능과 심미의 요구에 근거하여 각종 건축형태와 실내공간을 다양하게 만들었는데[11], 이동성이 부가된 정자에서 다양한 구성이 확인된다. 가변적 형태인 택승정과 관설암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평상이나 좌상이 유일한 구성인 반면, 차야택은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 외에도 이와 연결된 회랑이나 주인이 누워서 시를 지을 수 있는 작은 방이 별도로 있었으며, 배의 선미에는 하인들의 서비스공간을 두어 오랫동안 다양한 풍류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사륜정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정자에 해당하나 정간을 활용하여 바둑판 중심의 치밀한 공간 구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사방 6척의 공간 내에 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성을 보이고 있었다.

Table 1. The Design and Construction Methods for Ordinary and Movable Pavilions

Division	Ordinary Pavilion	Variable Facility		Mobility Addition		
		Taekseungeong Pavilion	Gwanseolam Pavilion	Chayeotaek Pavilion	Saryunjeong Pavilion	
Purpose	To Scenery Appreciation	To Scenery Appreciation	To Scenery Appreciation	To Pleasure Trip by Boat	To Scenery Appreciation	
	To Poetry	-	-	To Poetry	To Poetry	
	To the Game of Go	-	-	-	To the Game of Go	
	To Play the Geomungo	-	-	-	To Play the Geomungo	
	To Singing	-	-	-	To Singing	
	To Drink Alcohol	-	-	-	To Drink Alcohol	
Location	Scenic Spot (Flat Land, River· Lake, etc.)	Flat Land	Flat Land	River, Lake Ferry	-	
Direction	Preferred the South, Followed by the East and the North, and Avoided the West.	-	Direction in which the Wind Blows from Behind	-	-	
Size	Variant according to the surrounding terrain	Small Size with Benches on it	272.7cm(L: 9Chuk), 242.4cm(W: 8Chuk), 181.8cm(H: 6Chuk)	At River, Lake : 6.06m(L: 2Jang), 121.2cm(W: 4Chuk)	181.8cm(L: 6Chuk) 181.8cm(W: 6Chuk)	
				At Ferry : 18.8m(L: 6.2Jang), 3.8m(W: 1.25 Jang)		
Space Composition	Various Spatial Divisions within Space, such as Square, Hexagonal, Octagonal, etc.	- Place Bench	- Place 4 Small Bookcases - Fireplace	- Guest Reception Space - Service Space of Servants - Corridor - Poetry Room	Squared Cardboard of Go Board-Centric 9 cell - Host(1) - Guest/Poet(1) - Go Player(2) - Go Board(1) - Geomungo Player(1) - Singer(1), Geomungo and Various Furniture(1) - Entrance(1)	
Material	Ceiling	Tile	Paper Sheet : Red Thick Sheet of Oil(Waterproof)	Few Layers of Paper Sheet	Bamboo, Straw	Bamboo
	Wall	-	Cotton Cloth : Blue Insignia	Few Layers of Paper Sheet	Cotton Cloth Shroud	-
	Railing	Wood	-	-	Wood : Red-Painted Railing	Wood : Gye-Ja nangan Railing
	Pillar	Wood	Wood	Wood	Wood	Wood
	Floor	Pavement	-	-	Wood : Bottom of a Ship	Wood : Cart
Design and Construction Methods	- Flatten the Ground and Build a Pavement - Tile Roof - Tree Planting around a Pavilion	- Method of Coupling by Digging Holes in a Column - Use shrouds for weather considerations	- Frame-Type Construction - Set up a Wall with Several Layers of Shrouds.	- To make a Roof Out of bamboo or straw - Shroud Formation with Cotton Cloth - Opening and Closing of the Shroud according to the Weather	- Use Bamboo Roofs to Reduce Load - Open the Wall to Look everywhere and Let the Wind Blow Through. - Gye-Ja nangan Railing Installation to Utilize Limited Space - Four Wheels at the Bottom of the Pavilion	
Movable	No Movements	Break Up and Rebuilt	Break Up and Rebuilt	Because it is a pavilion built on a ship, the entire pavilion can enjoy rivers and lakes.	A four-wheeled cart that moves the Entire Pavilion	

3) 재료

정자를 시공하기 위한 재료는 가변적 형태의 정자와 이동성이 부가된 정자로 그 구분이 명확해진다. 택승정과 관설암은 골조를 구성하는 목재 외에는 모두 면포나 종이를 활용하여 이동성을 강조하였다. 이 중 택승정은 기상조건에 따라 강우 시 천장에 붉은 유돈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바닥면은 이동 중 경치가 빼어나 머무르고 싶은 장소에 설치되는 가변적 형태의 정자 특성상 별도의 재료가 도입되지 않으며, 기둥의 설치를 위해 평지를 택하거나, 지면을 고르게 하고 정자를 설치하였다. 반면 차여택이나 사륜정은 배 또는 수레 위에 조성된 정자로서 기둥과 바닥면은 목구조 형태를 지니며, 지붕은 바닥면의 하중을 저감시키기 위해 대나무나 짚을 엮어 사용하였다. 벽면에는 면포로 장막을 둘렀다.

4) 설계 시공기법

설계 시공기법으로는 대부분 일반 정자의 건축제도를 따르고 있다. 일반적인 정자의 제도를 살펴보면, 지붕은 기와로 잇고 하부는 축대를 쌓고 현(軒)으로 짓되, 사각 혹은 육각, 팔각으로 하였다[12]. 또한 들보, 기둥, 각목 등 목재로 조성된 골격은 지붕의 무게를 견디도록 하였다[11].

이동식 정자의 경우 정자의 하부가 수레나 배 등의 시설 위에 조성하거나, 바닥면이 없이 지면에 설치되는 구조로 유돈이나 장포를 둘러 천장면을 대체하거나 대나무·짚 등을 엮어 지붕을 대신하여 지붕 상부의 하중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공방법이 고려되었다.

한편, 목구조의 결합 방식은 이동성을 고려하여 시공방식을 간소화하고, 해체와 재조립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택승정은 기둥과 도리에 홈을 파서 조립하는 결구방식이 확인되며, 관설암은 틀짜기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동성면에서 더욱 특화된 차여택과 사륜정은 벽면에 난간을 둘러 건축적 구성이 두드러지는데, 차여택은 붉게 칠한 난간을, 사륜정은 계자난간을 둘러 정자의 모습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기존 정자의 시공법에 경량화를 위한 재료와 규모의 축소, 날씨 등 기상조건을 반영한 방수와 통풍기능의 적용, 이동성에 주목한 안전성 확보와 차륜의 설치, 주인의 취향을 고려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이동식 정자를 대상으로 정자의 구성과 공간분할을 통한 설계 시공방법을 살펴보고자 관련 문헌에서 확인되는 조영 배경, 입지와 향의 설정, 규모와 구성, 재료, 시공방법 등을 분석하고, 이를 일반 정자와 비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

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이동식 정자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면, 빼어난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조성된 정자는 정자 주변의 경관만을 감상할 수 있으며, 곳곳에 펼쳐진 경승을 두루 유람하기 위해 모든 곳에 정자를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경관을 탐미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또한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정자를 경영하는 것보다 더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삶의 실천 중 하나로서 산수를 즐기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동식 정자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졌다.

둘째, 이동식 정자의 조영목적은 계절별, 시기별 경관을 이동하며 감상하기 위한 창작물로서 모방을 중시하는 정원조영세태를 비판하고 창의적인 시공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정자에서의 풍류를 즐기기 위한 도구들을 이동식 정자 안에 비치하여 일반 정자를 향유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매번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고안되었다.

셋째, 이동식 정자의 설계 시공방식을 살펴보면, 경관을 조망하기 용이한 장소에 조망대상과 마주하는 입지와 향을 지니며, 택승정, 차여택, 사륜정 등은 정자가 펼쳐진 곳 또는 정박한 곳이 곧 정자의 입지가 되며, 관설암만이 바람을 등지도록 향을 설정하였다.

이동식 정자의 규모는 다양하게 확인되나, 이동 시 하중이나 이동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소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내부 공간에는 앉아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내부에서 시를 짓거나, 바둑을 두고, 거문고를 연주하는 등의 공간 구분이 확인되었다.

이동식 정자의 재료는 대부분 목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중을 저감시키기 위해 상부 지붕을 대나무나 짚을 엮어 올리거나, 유돈을 사용하여 방수효과를 겸하도록 하였다. 벽면은 개방시키거나 장포를 둘러 햇볕과 바람을 막았으며, 필요시 개방이 가능한 형태로 조성하였다.

이동식 정자의 설계 및 시공은 택승정과 관설암의 경우 결합과 해체가 용이하도록 하는 결구기법이 사용되었으며, 벽면을 병풍처럼 두르는 방식이 주로 확인되었다. 차여택과 사륜정은 선박 또는 수레 상부에 정자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결합과 해체가 필요하지 않아 일반 정자의 목구조식 시공방식을 따르고 있다.

넷째, 일반 정자와 이동식 정자의 설계 시공 특성을 비교해보면 경관감상을 주요 목적으로 조성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일반 정자는 건축적 제도와 제반사항을 따르는 반면 이동식 정자는 입지와 향에 제약사항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규모와 형태면에서 일반 정자는 사각, 육각, 팔각 등 다양한 형태와 규모를 지니고 있으나, 이동식 정자는 주로 방형의 형태로 한정적인 공간 속에서 이용행태에 따른 분류가 확인된다. 재료의 선정은 일반 정자가 정원 내 조성되는 건축과 유사한

형태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이동식 정자는 하중의 저감, 이동성의 고려 등으로 인해 목재나 기와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이, 면포, 대나무, 짚 등을 활용하는 특징이 확인된다. 시공방법에서도 목구조식 골격을 통해 조성되는 정자와 달리 이동식 정자는 해체와 재조립을 위한 결합방식과 난간의 조성 외에는 간이시설을 활용한 시설조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 정자와 비교해볼 때 이동식 정자는 조영목적 상 경관의 관람이 용이하여 입지와 향의 설정이 자유로운 방식을 지니고 있으나, 시공방법 상에서는 이동이 용이하고, 구조적으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정자로서의 기능과 형태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제도와 기법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그간 주로 연구되었던 정자에서 나아가 이동식 정자라는 고유 분야의 시공기법들을 살펴봄으로써 전통정원 공간 내에서 창의적으로 고안된 시설물들의 일면을 조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4개의 이동식 정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한계점을 지니며, 실제 이동식 정자가 시공된 사례가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아 이러한 경위를 알 수 있는 사료의 발굴이 필요하다. 차후에는 보다 많은 문헌자료의 수집범위 확대를 통해 이동식 정자가 하나의 정원문화로 자리 잡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분석범위를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Lee, W. H.(Author), (translate) Lee, S. H., Han, D. S., Lee, J. H. and Jo, I. S. (2000). Design Theory of Chinese Classical Architecture, Seoul: Sigongsa
- [2] Chung, D. O.(1986) Site Characteristics and Space Organizations of the Traditional Arbors in Chonnam Provinc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5(1): 25-38.
- [3] Kim, Y. K., Lee M. J. and Sagong, Y. B.(1999). A Study on the Preferred Elements of Pavilion in Kwang Ju City through the Analysis of Poem.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7(1): 29-45.
- [4] Kim, Y. K. and Lee, J. K.(1992). A study on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the arbour grove in the Choseon Dynasty period - with priority given to the " Byeol Seo " garden in the Young , Honam districts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0(1): 15-31.
- [5] Heo, G.(2009) Korean Pavilion, Seoul: Darunsesang.
- [6] Gwon, S. H.(2012). Go find the beauty of Korea, Seoul: Pobple.
- [7] Lee, G. G., Kim, S. G. and Kim, B. G.(2012). The Soul of Korea, Pavilion, Seoul: Minsokwon.
- [8] Kim, S. H. and Choi, K. R.(2009) A Study on 'Yusik' Space of Jung-ja Architecture in Choson Dynas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5(9):197-204
- [9] Park, E. K., Yun, H. S., Nam, H. H., Kim, Y. S., Choi, Y. C. and Hong, S. J.(1989). A Study on Jungja According To Sharyunchunggi,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Conference Abstract, pp.201-204.
- [10] Hong, H. S. and Lee, W. H.(2006). Experimental Spirit in Pavilion Culture of the End of Goryeo - Focusing on 「Sa Ryun Jeong Gi」 (四輪亭記) of Gyu-bo Lee(李奎報)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4(-): 26-34.
- [11] Wang, Y.(Author), Kim, D. W.(Translate)(2014). Wonrim and Chinese Culture 3, Goyang: Hakgobang.
- [12] Seo, Y. G.(Author) Ahn, D. H.(Translate)(2013). Build a House in the Mountainside, Paju: Dolbegae.
- [13] Do, M.(Author) Kim, J. H.(Translate)(2010). Okhobing, Seoul: ZMANZ.
- [14] Korea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2009). Oriental Landscape Culture History, Goyang: Daega Books.
- [15] Lee, E.(Author) Kim, E. J.(Translate)(2018). Garden of Pleasure, Paju:Geulhangari.
- [16] Seo, Y. G.(Author) Research Institute of Imwongyeongje (Translate) (2019). Imwongyeongjeji Iunji, Seoul: Punseok Cultural Foundation.

원 고 접 수 일: 2019년 11월 26일

심 사 일: 2019년 12월 3일 (1차)

: 2019년 12월 12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19년 12월 12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